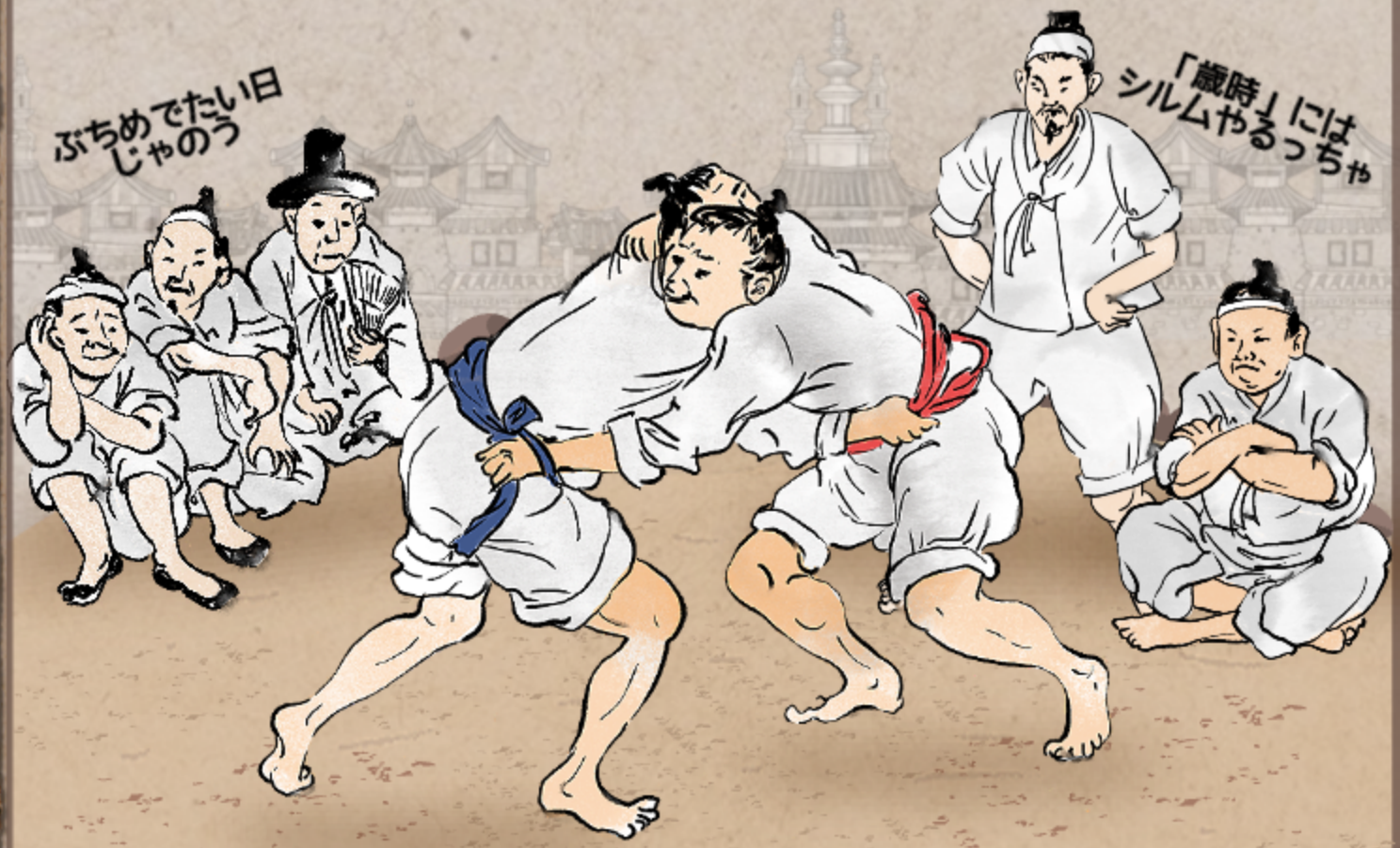
山口県　国際交流員レポート
8月号

秋夕



国際交流員
ソン・ハンビッ

韓国の「歳時」

「歳時」とは

「歳時」（セシ, 세시）とは
「歳（年）」の「時期」に合わせた
「風習」と「民俗」

日本の年中行事と似ている

古代の中国の記録によると、朝鮮半島に農耕と暦が導入され、特定の時期に天＝神様を祭る風習が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朝鮮三国時代、高麗、李氏朝鮮の行事となり、現代まで韓民族（朝鮮民族）の年中行事となりました。

代表的な歳時には、ソルナル(正月)タンオ、チュソク等があります。

チュソク（秋夕）と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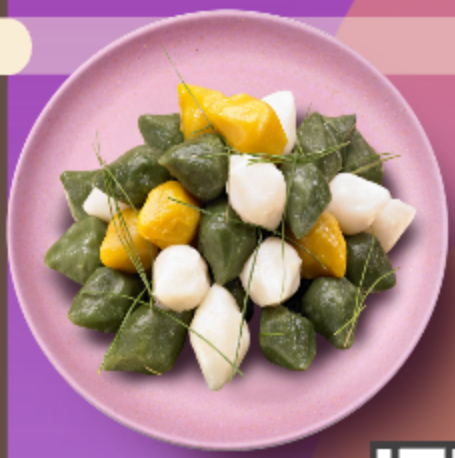
チュソクは、韓国人の歳時のひとつで、旧暦8月15日です。一年の中で、満月が一番大きい日と言われてお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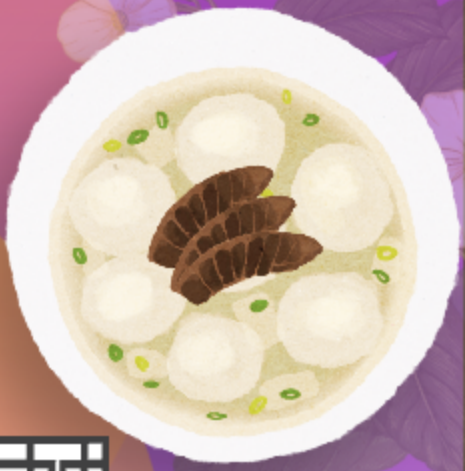
朝鮮半島の人々は、農耕を始めてから、毎年秋になる前に、先祖に感謝しながら豊作をお祈りしました。家族・親戚が集まり、先祖の墓の手入れをして、お茶とお酒を捧げ、健康と幸運を祈ります。また、町の人々が集まって、料理を交換し、弓撃ち・シルム(韓国のレスリング)・綱引きをやって、共同体意識を育てました。

現代になっては、チュソク前後日を含め、三日間の連休となる、韓国の最大の年中行事です。多くの韓国人が、それぞれのふるさとに帰省するので、「民族大移動」に例えられるくらいです。
一家が集まって、お互い歓談しながら、「ソンピョン」、「里芋のスープ」、「チヂミ」等の節目料理を作って、皆で食べます。

最近のチュソクの過ごし方は、現代のライフスタイルに変わりつつあります。連休を利用して、家族で海外旅行に行ったり、ゆったり過ごしたりします。宗教によっては、お墓参りの代わりに、礼拝を行います。
また、家族単位で体験できるチュソクのイベントがたくさん行われて、伝統遊び・伝統舞踊等を体験して、昔ながらの風習も守っています。

チュソクの
伝統文化





ソンピョン
中に砂糖、ナッツ
栗、豆、ナツメ
等が入ったお餅
可愛いソンピョンを
作ると、可愛い娘を
もうけるという。

里芋のスープ
8月に収穫した
初物の里芋で作る
スープ
牛肉・鶏肉・大根
等が入った
優しい味のスープ

シルム
互いのベルトを
掴んで相手を倒す
韓国式レスリング
韓国の歳時の中で
端午とチュソクに
よく行われる

カンガンスルレ
戦争から由来した説も
あるが確かではない
過去からチュソクに
皆で手をつないで
月見をする時の
踊り

야마구치현 국제교류원 레포트
8월호

추석

국제교류원
성 한 빛

한국의 "세시"

"세시"란

「세시」（歲時）란
「해 歲=年」의 시기(時期)에 맞춘
「풍습」과「민속」

일본의 연중행사와 비슷하다

고대 중국 측의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에 농경과 역법이 도입되고 부터, 특정 시기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시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걸쳐 현대까지 한민족의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세시로는 설날, 단오, 추석, 동지 등이 있습니다.

추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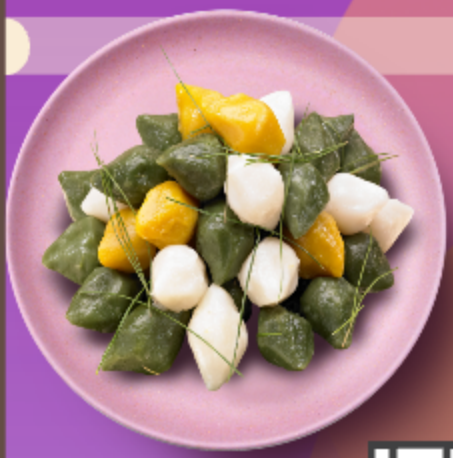
추석은 한국인의 세시풍속의 하나로서 음력 8월 15일입니다. 1년 중 보름달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날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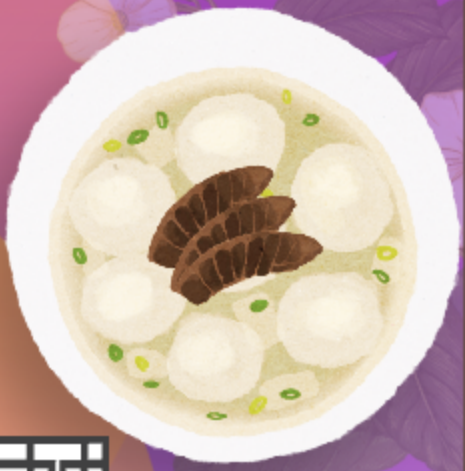
한반도의 사람들은 농경생활을 하면서, 매년 가을 직전에 선조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풍작을 기원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성묘를 하며 묘를 손질하고, 차와 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 날은 참으로 길한 날이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눠먹기도 하고 활쏘기, 씨름, 줄다리기 등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에는 추석 전후일을 포함해, 3일 연휴가 되어 한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귀성하기 때문에, "민족대이동"에도 비유됩니다.
가족친척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 「토란국」, 「전」등의 명절요리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의 생활방식에 맞춰서 추석을 보내는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거나, 푹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성묘 대신 예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참가 가능한 추석 행사가 많이 열려, 전통놀이, 전통무용 등을 체험하며, 옛부터의 풍습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의
전통문화





송편

안에 설탕, 견과류
밤, 콩, 대추
등이 들어간 떡
예쁜 송편을 만들면
예쁜 딸을 얻는다는
속설이 있다

토란국

8월에 수확한
햇토란으로 만드는 국
지역에 따라
소고기, 닭고기, 무
등이 들어가는
맑은 국

씨름

서로의 샅바를
붙잡고 상대를 넘기는
한국의 레슬링
한국의 세시 중에서도
단오와 추석에
즐겨 한다.

강강수월래

전쟁에서 비롯된 풍습
이라는 말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옛부터 추석 때 서로
손을 잡고 달맞이를
할 때 추던 춤